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풍림산업

# 건설업 외길 100년 역사 만든다

풍림산업은 1954년 창립 이래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미래 구현'을 목표로 건설 외길을 걸어온 종합 건설사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한 길만을 걸어온 풍림산업은 국내 건설 산업의 한 획을 긋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믿음의 100년 역사로 도약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풍림산업만의 경쟁력과 저력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김혜영 사진·자료 제공 풍림산업

그동안 SOC 사업을 비롯한 철도·교량·단지 조성 공사 등 토목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명성을 쌓은 풍림산업은 방화대교, 서해안 고속도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건설 공사, 대구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건설 공사 등 수많은 공사에 참여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1976년 중동 진출을 시작으로 이후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진행된 대규모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건설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렸다.

세계화 및 기술산업의 고도화 시대에 대비해 1980년대부터 토털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종합 건설업 체제 구축에 힘쓴 풍림산업은 1990년대에 이르러 환경 산업·레저 사업 등 사업 분야를 확대시켰다. 특히 P/L PROCESS(질소·인 제거 공법)의 개발로 환경 산업을 특화하는 등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성장해왔다. 현재 풍림산업은 토목·건설·플랜트·주택 사업에 이어 철구·건재·환경·엔지니어링·레저에 이르기까지 건설 분야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재 육성· 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풍림산업이 국내 20위권의 종합 건설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위(無爲)와 무심(無心)의 경영'을 추구하는 이필용 회장의 경영 철학 덕분이다. 그는 조직의 리더는 지혜와 자제심으로 조직을 이끌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경제 불황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이 회장은 국내의 조직을 개편하고 관리 인원을 줄이는 한편, 전문 하도급 업체를 육성하는 등 공사의 전문화를 추진했다. 동시에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결과 도전과 성취 욕구가 강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오늘날 풍림산업의 성공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

풍림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내 민간 건설 시장이 위축되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으로 공공 시장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인재 육성과 핵심 기술 개발 등에 매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민간 발주 아파트 공사를 적극 수주할 방침이다. 또한 액스 모빌이 발주한 러시아 항만 접안 시설 및 부대 시설 공사와 셀이 발주한 가스 파이프 라인 가압 공사 진출을 계기로 해외 사업도 강화할 체비를 갖췄다. 풍림산업은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투명 경영을 토대로 핵심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직하고 깨끗한 기

# EXLLU TOWER





업 문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 믿음의 100년 역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아이원 · 엑슬루 타워 통해 미래 주거 문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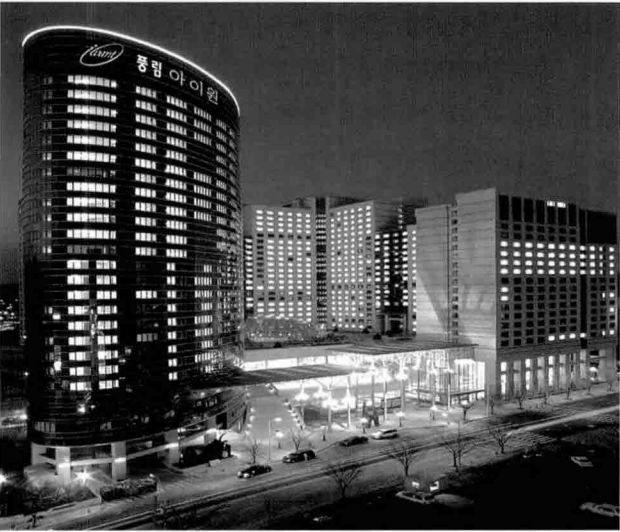
풍림산업은 주택 사업 분야에서 단순한 주거 개념에서 탈피해 인간 생활의 편리함과 문화를 담은 주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풍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원(I-want)'의 I는 고객, want는 바람·희망을 뜻하며, 고객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원하는 고품격 주거 공간을 짓겠다는 풍림산업의 의지를 담고 있다.

풍림산업은 아이원의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인정받는 고품격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의 기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거주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내부 설계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조경 설계 등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침묵 초배지와 친환경 벽지, 바이오세라믹 몰탈, 친환경 페인트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동서남북의 탑상형 설계와 선진형 평면 설계, 초고속 광통신망 등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및 단지 내에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적용한 것이 아이원의 특징이다. 세대 간 월패드·홈패드를 이용해 단지 내 화상통화가 가능하며, 전력선을 이용해 전력, 수도, 가스 등 세대 내 원격 검침을 실시하고 있다. 또 CCTV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을 가정에서 웹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동·가스 밸브·보일러 제어 시스템, 부재중 방문자 확인,





출입문 제어, 홈 포털 시스템 등을 적용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했다. 풍림산업은 또한 고객 감동 실현을 목표로 2007년부터 'I-WANT + Iservice' 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 1년차 단지는 아이원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배수 트랩 및 거름망 청소, 세대 내 방역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년차 단지에는 렌지후드, 가스레인지 청소 서비스와 온돌 마루 점검 및 청소를 제공하는 웰빙 서비스를, 입주 3년차 단지에는 내외부 유리창 청소, 방충망 청소를 해주는 클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풍림산업 임직원들 또한 선진국 견학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선진 주거 문화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파악해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풍림산업은 아이원의 성공에 힘입어 초고층 브랜드인 '엑슬루 타워(Exllu Tower)' 를 선보였다.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닌 고품격 주거 공간으로서 유무형 가치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엑슬루 타워는 'Ex' 에서 'Excellence(우수함)' 의 의미와 첨단 기술 이미지를, 'lu' 에서는 한문 루(樓)-나무를 짜서 높이 세운 망루-자를 결합시켜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초고층 '마천루' 를 이미지화했다.

**자연 친화적 생태 주거 단지 '대전 금강 엑슬루 타워' 공급**

풍림산업이 대전에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금강 엑슬루 타워 2312 가구를 분양한다. 금강 엑슬루 타워가 들어설 옛 풍한방직 터는 대전시 대덕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금강 프로젝트' 의 시발점이다.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금강 수변 공간을 건강과 생태, 문화 시설 등이 복합된 휴양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 엑슬루 타워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금강변에 조성되며, 9%대의 건폐율에 금강과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연계된 테마수변 공간을 통해 개방감·쾌적성을 극대화한 자연 친화적 생태 주거 단지다. 이곳은 지상에 주차를 최소화해 4만 7720㎡에 달하는 순수 녹지 공간과 축구장 크기의 잔디 광장, 휴게 시설,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등을 갖춰 전원 도시에 걸맞는 공원 같은 단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대전 지역에 공급된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 북측에 흐르는 금강뿐 아니라 대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 50층 높이의 타워형 아파트로 설계해 조망권이 탁월하다.

또 단지 내부에서 월패드(Wall-Pad)를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구청과 단지 간의 민원 전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집 안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한 구청 민원 담당자와의 실시간 민원 상담은 물론 각종 민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초고속 정보통신망, 최첨단 세대 환기 시스템 구축, 서울 유수 학원의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풍림산업은 지난 50여 년 동안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와 명성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민음의 100년 역사를 구축하기 위한 풍림산업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본다. ☎

